

# 1분기 글로벌 기술규제 역대 최다 국표원, PP 유예 등 애로해소 총력

(폴리프로필렌)

WTO 회원국 1334건 통보  
전기전자·에너지분야 규제 급증  
김대자 원장 “TBT 애로 적극 해소”



미국 등 주요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다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세계 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12.0%)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미국·EU·중국 등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규제 건수 증가율이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규제 건수 역시 1년 전의 1.5배로 크게 늘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를 비롯해 에너지효율규제 등을 강화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이다. 또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9.4%(102→132건) 증가했다. 미국은 올해 1분기 규제 건수 기준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64→79건)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전기전자·자동차안전분야 규제가 급증함에 따라 1년 전 같은 분기(14건)와 비교해 올해(28건) 건수가 100% 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새로 제시한 규제도 지난해 1분기 16건에서 올해 40건으로 150% 증가했다. 이 밖에 대만 +66.7% 일본 +23.1%, 사우디아라

비아+125%, 아랍에미리트 +250%, 칠레 +309.1% 등이다.

그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다.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올해 3월)했고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 및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국표원은 의견 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라며, 업계가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표원의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한국전 참전용사 위문  
6.25전쟁 75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 집중점검

사고예방 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 확인

환경부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된다.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

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 외국인 등 가축방역 교육 강화

‘가상농장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중국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신규진입 축산농장주를 대상으로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8개 언어를 지원한다. 외국어판은 영어와 중국어, 네덜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제작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교육 수요증

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달 14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교육 수요증을 받은 축산농장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또는 필수 방역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비싼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도록 제작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해당 인터넷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사항 ▲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이 시범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이나 거주지 인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본부·사무소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 내달 전국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참여

해양수산부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경우 ▲암초대계 불법포획

및 유통,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해안은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실뿔장어 불법포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고용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E-9)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 2418명이다. 제조업이 1만 632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2347명), 어업(2077명), 조선업(625명), 서비스업(596명), 건설업

(445명) 순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 2000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9 | 해질 / 19:06  
4월 14일 (월)  
음력 : 3월 17일  
수도권 날씨  
4 ~ 10°C  
운동 지수: 4, 빨래 지수: 4, 세차 지수: 4, 외출 지수: 4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2/11, 가평 -1/10, 파주 1/10, 서울 4/10, 양평 1/10, 인천 4/9, 수원 4/9, 용인 4/9, 평택 2/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행정부, 연내 불법이민자 100만명 추방 목표”  
▲ 美, 우크라이나에 ‘러-유럽 가스관’ 관리권 추가요구



▲ 미군, 예멘 전국에 10차례 폭격... “공격작전 지속될 것”  
▲ 시진핑 관세전쟁 후 첫 발언 “어떤 부당한 억압도 두렵지 않다”  
/사진 뉴시스

▲ 유명 일본 진통제 국내 반입 금지...마약류로 분류돼  
▲ 우크라 참모본부 “러시아, 개전 이래 인명 피해 93만여명”